

타조농가를 위한 기본 사양방법 및 질병관리

편집부

기본 사양방법

◆ 종타조확보

종타조는 수컷 5년, 암컷 4년생 이상이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로 국내에서 3월~10월 사이에 알을 낳는 우수 종타조여야 한다.

타조는 모래 웅덩이를 파고 2일에 하나씩 연 50~90개의 알을 낳는다.

◆ 알수거

타조알은 산란즉시 위생장갑을 끼고 수거하되 흔들림이 적어야 하고 약 18℃ 정도의 환경에 보관하고 일주일안에 부하기에 넣어야 한다. 개체관리를 위하여 알에는 산란일자와 번호를 기록한다.

◆ 부화시작

온도 36.4℃, 습도18~24%의 부화기를 소독하고 타조알은 소독한 브러시로 닦아낸 후 부화기로 넣기전 24시간 정도 20℃ 이상의 온도에 적응시킨 후에 넣어야 한다.

◆ 부화에서 발생까지

부화일은 42일이 소요되는데, 39일 되는 날 발생기에 옮기고 발생기에서 3일후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 병아리는 번호를 메기고 즉시 배꼽을 소독해주고 6일후 다시 배꼽을 소독해 준다.

병아리는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 1주일 후부터 부드러운 사료와 물을 주기 시작 한다. 약 2~3주간 사육상자에서 기르는 것이 보온과 위생에 적합하다.

◆ 육추실

병아리는 육추실에 열전등을 달아주고 밤에는 축사로 가두고 낮에는 태양열 아래 물과 사료를 주며 운동을 시킨다.

사료는 알파파 등 배합 사료를 1일 1회 주며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밤에는 온도를 높여 주고 낮에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킨다.

◆ 병아리

3개월 후면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

12개월 정도면 고기용으로 도축할 수 있고, 사육용으로는 3개월부터 쌍으로 분양한다.

사육 관리에서 다른 가금류와 격리되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 타조의 체중증가율

부화일: 0.8kg	7개월: 63kg
1개월: 4kg	8개월: 73kg
2개월: 11kg	9개월: 82kg
3개월: 20kg	10개월: 92kg
4개월: 28kg	11개월: 96kg
5개월: 40kg	12개월: 100~110kg
6개월: 52kg	(도축용으로 적합)

◆ 사육장시설

사육장은 평지에, 종란성 타조는 트리오로 넣을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으로 간격을 해주고 한 쪽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한쪽편에 보온

막을 설치해준다.

가운데쯤 모래 구덩이를 만들어 알을 산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일 사료와 물을 제공해 준다.

타조는 머리를 모래속에 파묻고 목욕하며 숨기도하는 습성이 있다.

성타조의 사육장 철망 높이는 지상에서 약 2미터, 길이는 약 30미터 이상이 적합하고 병아리는 바닥을 플라스틱 망이나 고무판을 깔아서 미끄럼과 불순물을 먹는 것을 방지하고 타집승, 족제비, 고양이과의 침입을 주의해야 한다.

타조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먹지만 철사, 목, 플라스틱 종류는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타조는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영하 40℃에서부터 영상 50℃까지 적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다.

◆ 사료 교체시 유의사항

사료교체시 사료의 입자도와 영양소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처음 2일간은 이전사료와 교체사료의 비율을 75 : 25의 비율로 급여하고 그 다음 2일간은 50 : 50으로, 또 그다음 2일간은 25 : 75로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 6일간은 적응기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타조의 질병관리

타조사육에 있어서 질병관리는 집단 폐사의 위험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냐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이 직결된다. 모든 동물이 그러하다시피 타

조의 질병 역시 대부분 사양관리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아직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의 자료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조사육이라 함은 사료만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조사육에 있어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청초, 배합사료, 물, 자갈, 및 환기 관리를 어떻게 적절히 이행하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사육농장의 특성을 잘 알아서 관리를 해야 성공적인 타조사육이 가능할 것이다. 즉, 많은 바이러스성 질병은 닭에 발생하는 원인체가 타조에도 감염되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양계장이 인접할 경우와 다른 포유류에 발생하는 병원체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1. 바이러스성 질병

- 뉴캐슬병: 이 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 어린 타조에 감수성이 높고 폐사율 또한 높다. 감염은 주로 구강 또는 호흡기로 감염되며 신 경증상을 나타낸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인플루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아주 심하고, 항원형이 아주 다양하여 질병의 면역이 아주 어렵다. 이는 겨울 철새가 모여드는 곳의 농장에서 농장안으로 야생 조수를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아데노 바이러스 : 출혈성의 급성 장염을 나타내며 급사하는 질병으로 회색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설사를 주증으로 한다. 불활화 백신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세균성 질병

세균성 질병은 바이러스 질병과는 달리 발생시 감수성 있는 항생 물질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질병관리가 용이하나,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 대장균증: 병원성 독소가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체로 작용하는데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 균이 분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효과가 있는 약

<표> 타조의 주요 질병 분류

구분	원인별	질병명
전염성 질병	세균성 질병	결막염(Conjunctivitis) 등의 안과 질병
		난황오염(Yolk sac infection)
		눈감염증(Infection of the eyes)
		단독(Erysipelas)
		대장균증(Colibacillosis)
		메가박테리아(Megabacteria)
		살모넬라(Salmonella)
		제대염(Omphalitis)
		캠피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
		클라미디아증(Chlamydiosis)
		클로스트리디움성 장염(Clostridial Enteritis)
		타조결핵(Mycobacteriosis)
		탄저병(Anthrax)
		파스튜렐라증(Pasteurellosis) (제1종 법정 전염병)
		패혈증(Blood poisoning)
	페이딩증후군(Ostrich Chick Fading Syndrome, OCFS)	
	폐렴(Pneumonia)	
	바이러스성 질병	가금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계두(Fowl pox)
		뇌염(Encephalitis)
		뉴캐슬(Newcastle disease)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기타의 바이러스 질환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osis)
	클라미디아	앵무병(Paittachsia)
	곰팡이 및 효모	곰팡이성 폐렴(Aspergillosis)
		곰팡이성 피부염(Mycotic dermatitis)
		칸디다증(Candidiasis)
	원충성 질병	콕시디움증(Coccidiosis)
		흑두병(Jistomoniasis)
비전염성 질병	체내기생충	촌충(Tapeworm)
		타조선충(Ostrich Wireworm)
		회충(Mawworm)
	체의기생충	깃털진드기(Quill mites)
		이(Lice)
		진드기(Ticks)
		파리(Flies)
	영양적 질병	구루병(Rachitis)
		비타민, 무기물 결핍증
	다리의 질병	
	부상	

제를 선발하여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줄여야 한다.

- 장독혈증: 장독혈증은 토양균의 일종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동물에서 장내 상재균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수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다른 세균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에 한번씩 항생제 투여를 실시해야 한다.

- 파스튜렐라: 파스튜렐라는 전신 감염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면서 급성(침울, 급사)같이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내는데 항생제로 톤당 CTC 500g을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㉟

(도움말: 피닉스통상)